엔터테인먼트

1월 음반 수출 동향

엔터/레저
Analyst 김민영
minyoung.kim02@meritz.co.kr

Meritz Research 2026. 2. 25

1월 음반 수출액 데이터

- 전체: 2,971만달러 (+132.0% YoY, -15.2% MoM)

- 미국: 1,193만달러 (+601.6% YoY, +110.9% MoM)

- 일본: 319만달러 (+104.8% YoY, -46.4% MoM)

- 중화권(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)
  : 762만 달러 (+9.7% YoY, -58.2% MoM)

- 동남아시아(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)
  : 42만 달러(-57.2% YoY, -27.6% MoM)

- 유럽 및 영어권(캐나다, 프랑스, 영국, 독일, 호주, 네덜란드)
  : 451만 달러 (+281.5% YoY, +53.0% MoM)

→ 국가 비중: 미국 40.1%, 중국 14.0%, 일본 10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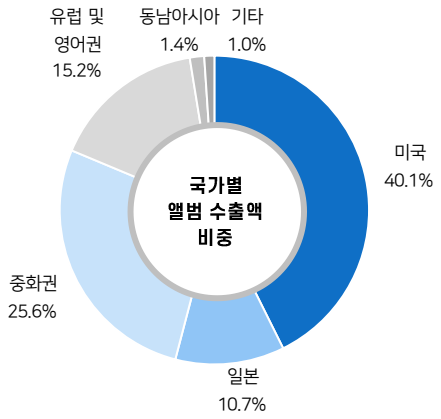
수출 동향

- 1월 글로벌 음반 수출액은 2,971만 달러(+132.0% YoY, -15.2% MoM)으로, 음반 발매가 적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. 특히, 미국향 음반 수출액은 1,193만 달러(+601.6% YoY, +110.9% MoM)로 지난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액 YoY 성장을 견인

- 알파드라이브원(1/12), 엔하이픈(1/16), 엑소(1/19) 등 주요 IP 컴백이 있었으며, 특히 미국향 음반 수출액 증가는 엔하이픈과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지표가 강한 그룹의 신보 효과, BTS, 블랙핑크 등 메가 IP의 컴백 전 구보 판매량 증가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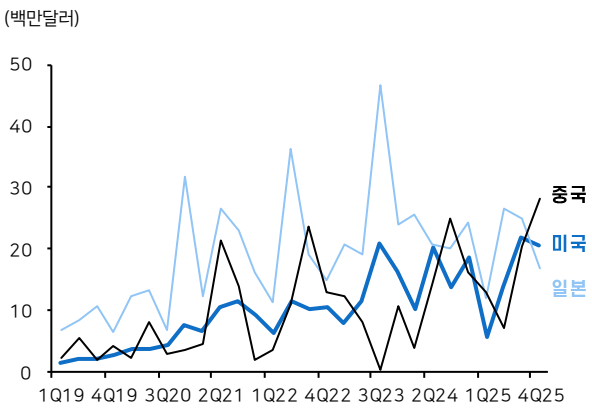
- 2월 블랙핑크, 3월 BTS 컴백, 4월 이후 코첼라 등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, 아티스트 컴백 활동 증가에 따라 음반 수출액 성장 지속될 전망

그림1 1월 기준 음반 수출액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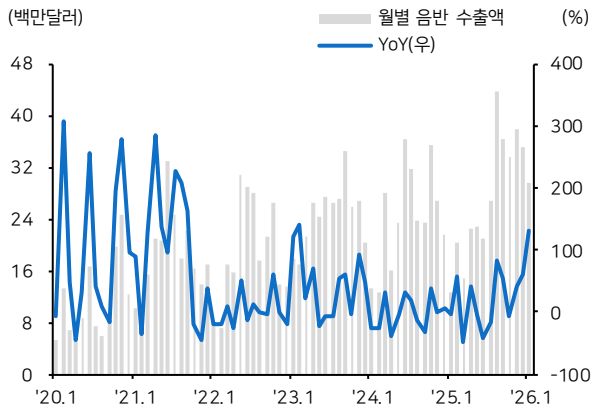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분기별 미국, 일본, 중국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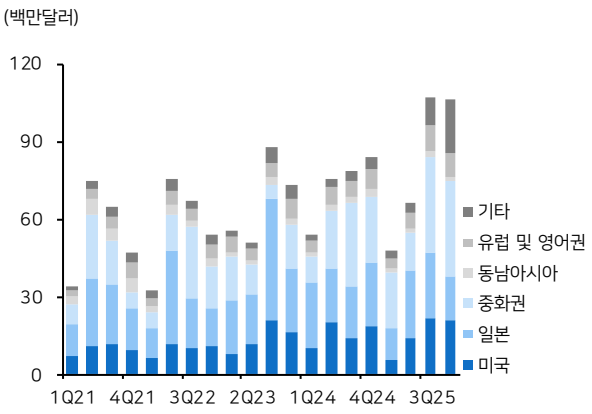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월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지역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